드론 실증도시 구축 '맞손'

남원시-국토부, 드론 레저스포츠 육성·K-드론 배송 성공 추진 협약 체결

남원시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세종시 플러스 호텔에서 국내 드론 산업의 상용화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해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공모 선정으로 국비 11억 9천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드론 레저스포츠 DFL 국제대회개최 11억, K-드론 배송으로 특화된 공공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9천만원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구축 사업은 드론 레저스포츠와 K-드론 배송 분야로 드론 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해 국토부에서 개발한 국산 드론기체로 DFL을 고도화하고 글로벌화·상용화·국산화로 올해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제3회 남원국제드론제전을 통해 국토부장관배 DFL 드론 레이싱대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K-드론 배송은 남원시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2개 권역(지리산권 : 아웃도어레저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배송, 시내권역에는 관광객 맞춤형 기념품과 식음료 배송)에 공공서비스를 실시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3년 연속 선정이라는 명예에 걸맞게 드론레저스포츠 육성과 K-드론 배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2023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국비 14억원을 확보해, 첨단드론스포츠 시스템 개발 실증, 드론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소방드론 자율주행 남원시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 시험 적용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는 국비 9억원을 확보, 남원시 드론 배송 서비스 구축(2개 거점, 10개 배달점 구축), 드론활용 공간정보 구축, 남원형 드론레이싱 기체 개발 및 드론 경기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미래 드론인재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 자체 신규 사업으로 시민참여형 드론 스포츠교육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세종시 플러스 호텔에서 국내 드론 산업의 상용화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해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73대 이정호 순창경찰서장 취임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 될 것"

제73대 순창경찰서장으로 이정호 서장이 지난 10일 취임했다.

이정호 서장은 취임식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출신인 이정호 서장은 1995년 순경공채로 경찰에 입직 후, 전남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경찰청 정보상황계장,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그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경찰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든 경찰 구성원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경찰 관계자 및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로운 경찰서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치안 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순창=이양원 기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어르신 생명 보호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지난 5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김OO 어르신(82세)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위기 상황을 예방했다.

3월 5일 오후 5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는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위해 김OO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생활지원사는 즉시 보호자와 기관에 상황을 보고한 후,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했다.

현장에 도착한 생활지원사는 어르신이 온몸을 떨며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즉각 119에 신고하고, 보호자 및 기관에 상황을 알렸다.

특히 보호자가 먼 거리에 있어 동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생활지원사는 도착한 119 응급대원과 함께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며 보호자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인 안부 확인, 건강관리 지원, 생활 지원 및 정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뿐만 아니라, 위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백종원 대표와 지역상생 프로그램 추진

제95회 춘향제 성공 개최 ·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남원시가 지난해 제94회 춘향제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남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1만원 이하의 착한 먹거리 개발로 130만 인분의 음식을 팔아 117만명 방문객을 이끈 흥행보증수표 백종원 대표와 함께 올해도 제95회 춘향제 등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백종원 대표는 지난 제94회 춘향제에서 품질 높은 다양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춘향제에 대한 신뢰도 뿐만아니라 화제성까지 높여 전년 대비 3배의 방문객인 117만명이 다녀가게 하는 등 792억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에 기여했으며, 남원시는 올해 제95회 춘향제에서도 백종원 대표와의 협업을 통해 바가지요금 없는 착한 축제 먹거리 개발 등 성공적인 미식 관광 축제 모델을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관광객 200만명 유치 목표로 축제와 먹거리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추진에 공동 협력한다.

이에 남원시는 올해 제95회 춘향제에서 지난해 착한 가격과 검증된 맛으로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를 더 본존과 바베큐존으로 더욱 확대하고 지역 상인들에게 요리 노하우 전수 및 농특산물 먹거리 컨설팅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백 대표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및 지역특산품 홍보, 전년대비 50%이상 신메뉴 개발 등 지역 특산물 활용 및 상권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축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백종원 대표와의 협업을 통해 제95회 춘향제 성공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참두릅 여행·힐링마실 플로깅대회' 참가자 모집

순창군이 봄을 맞이해 오는 4월 19일 열리는 '참두릅 여행·힐링마실 플로깅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걷GO, 줍GO, 건강하GO'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힐링마실 플로깅대회'는 걸으면서 섬진강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행사로 오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순창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채계산 출렁다리에서 출발해 섬진강 자건거길을 따라 섬진강미술관까지 약 4km 구간을 따라 진행한다.

특히, 코스 내에는 보호수와 다양한 식생이 자리하고 있어 참가자들은 섬진강변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자연을 가꾸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아울러, 순창군은 참가자 전원에게 플로깅 키트와 기념품을 제공하여 의미 있는 섬진강 정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플로깅을 마친 후에는 '순창참두릅여행 축제'에 참여해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다.

아울러, 사전 신청을 한 참가자들은 일정 비용을 자부담해 고추장 만들기 체험, 도자기 만들기 체험,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순창을 방문하는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3월 31일까지 순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연찬회 개최

임실군이 지적 행정 협력 강화,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0일 LX 임실순창지사에서 지적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지적측량 수행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임실군 지적 업무 담당자와 LX 임실순창지사 직원들이 측량 민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정확한 고품질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연찬회는 급증하는 토지경계 분쟁과 지적측량 불만 민원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의 자리로, 지적측량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업무 토론과 함께 민원인에 대한 친절 서비스 교육을 병행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내달부터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4월부터 지역 주민 및 남원시에 있는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활동량계(스마트 밴드)와 모바일 앱(채움건강)을 활용, 전담팀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 없이 맞춤형 건강 상담과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6개월 동안 1:1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는 최초 방문 검진-건강관리 서비스(12주)-중간 검진-건강관리 서비스(12주)-최종 검진 순으로 이뤄진다.

모집은 3월부터 모집인원 충원 시까지(선착순 100명)이며, 대상자 자격 요건은 만 19~64세 남원시 거주자 및 남원시에 있는 직장인으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3-620-7967, 7968)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농민 공익수당 5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남원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급 방식이 기존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개별 단위' 지급으로 변경되면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 여성 농업인도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원시에 새롭게 정착한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 요건이 완화되어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경영체에는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의 경우 구성원 1인당 30만원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대상자 검증 절차를 거쳐 추석 명절 전까지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